

▶ 미술의 대중화 지향 **전북 나우아트페스티벌** 24일 팡파르

# 도내 미술의 흐름 한눈에 엿보기

유망한 미술가를 발굴하고, 미술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Jeonbuk Now Art Festival:JAF).

(사)한국미술협회전북지회(회장 강신동)가 주최하고,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이 24~28일 전북예술회관과 교동아트미술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나는 예술가다. 전북 GOOD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는 도내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신진·중견·원로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및 판매활동이 이뤄진다.

미술의 다양한 갈래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JAF Flash 27人' 전시를 눈여겨 볼만하다.

윤철규, 홍경준, 허대용, 장명화, 김관목, 이숙희, 이상훈, 황나영, 정하람, 김지형, 이남석, 송영란, 김태진, 문현정, 장문갑,

김누리, 양광식, 이윤경, 김보영, 이권숙, 김상덕, 김순영, 조계환, 윤지희, 여은희, 장현숙, 최수일 등 페스티벌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JAF Youth 9'에선 조수진, 최지연, 이주영, 황미연, 최진희, 유시라, 이종철, 유예빈, 윤소라 등 젊은 미술가들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전북미술계의 거장을 재조명하는 '전북작고 작가 특별전'에선 **故조운출** 작가의 미술사를 들여다본다.

'JAF 설치전'은 설치 및 조형 작가들의 작품을 광장에 연출하여 미술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다.

'작가 오픈스튜디오'는 작가의 작업실을 구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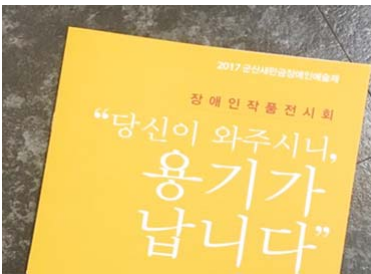
작가의 이야기를 일반 관객과 컬렉터들이 함께 나누며 작업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미술 관람에 대한 친밀감을 유발하고자 올해 첫 선을 보인다.

24일부터 5일간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신진·중견·원로작가들의 작품 전시 JAF 설치전, 조형 작가 작품 광장 연출 작가 오픈스튜디오, 올해 첫 선보여

이 외에도 JAF 미술놀이터와 Art Box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25일 오후 5시 전북예술회관 야외에서 행위예술가 및 공연자의 퍼포먼스로 막을 올린다.

강신동 회장은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전북미술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물론 차별화된 홍보와 컬렉터들의 장기적 연계 전략으로 도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새만금장애인예술제 작품전시회 군산서 개최 22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새만금장애인예술제 작품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새만금장애인예술제 작품전시회는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의 주체적인 연습과 준비과정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유대감,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2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13명의 예술가들이 직접 그린 한국화를 비롯해 사진, 목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군산=장 현 기자

## 박물관서 놀고... 만들고... 즐기고...

정읍시립박물관 '박물관 주간' 성료

정읍시립박물관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박물관 주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8월 15일 광복절에 시작한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의 끝을 앞두고 있는 정읍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박물관, 가고 싶은 박물관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가족간의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값진 축제장 같은 분위기였다.

박물관 주간행사 기간 동안 천연비누만들기, 미술쇼, 장승만들기, 머그컵만들기, 박물관 색

칠공부, 겨울에 받아보는 편지, 애니메이션 상영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박물관 주간행사에는 6일간 2,500여명의 많은 관람객과 체험객이 찾아왔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자칫 무료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방학기간중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행사 참여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시민강좌 '근현대 전주 도시풍경...' 수강생 모집

전주역사박물관은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 '근현대 전주의 도시풍경과 전주사람들의 일상'을 개설하고, 오는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총 8강으로, '전주 서점가와 출판거리' (이태영 전북대학교수), '전주 음식점과 막걸리집' (송화섭 전주대학교수), '전주, 추억의 다방' (김남규 전주시의원), '근현대 전주 길의 변천' (허태규 전북대학교수), '현장 답사(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전주 영화 이야기' (신귀백 영화평론가), '전주 한옥마을' (함한희 전북대학교수), '전주의 근대건축' (최진성 전주고교

사)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주는 전라도의 수부로서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운 예향의 도시"라며 "이번 시민강좌에서 전주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통해 전주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좌는 무료이며, 수강생은 100여명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천년음악, 바람을 만나다' 25일부터 이틀간 전통문화전당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천년음악, 바람을 만나다'를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오후 7시30분 전당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당과 (사)타악연희원 아귀의 협업으로 열린다.

창작 초연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공연은 천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 타악과 국악 관현악을 비롯해 서양의 파이프 오르간, 동양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불리는 '생활'의 하모니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천년을 이어갈 새로운 음악을 창출한다.

'천년음악, 바람을 만나다'는 파이프 오르간

협주곡 '여민락(與民樂)', 모듬북 협주곡 '바람의 향연', 동양의 파이프오르간 생활 협주곡 '이리랑', 관객과 호흡하는 '이리노리', 사물놀이 협주곡 '풍류도시' 등 총 다섯 악장으로 나눠 총 90분 간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 함께 참여한 다음극악관현악단(지휘 강성오)은 모듬북과 사물놀이 그리고 관현악단의 협주를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했으며, 동·서양의 파이프오르간과 관현악단의 협주로 만든 기존 국악 곡을 편곡하여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멜로디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전화(063-281-1525)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